

2배 넓어진 광화문광장 7월 개장



▲ 서울 광화문광장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다시 개장한다.

지난 2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공사를 오는 6월 완료,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개장 시점은 당초 4월에서 3개월 늦춘 것이다.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적정한 공사기간을 적용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광화문광장은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

혀 조성된다. 총면적 4만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커진다.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9,367㎡)은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산수유와 목련, 느릅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만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도 곳곳에 설치된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역사물길(260미터)'을 완성하고 워터테이블, 터널분수도 새로 만든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도 새롭게 조성된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 콘크리트 경사로 벽면 미디어월을 설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출생아 2만명대 첫 붐괴

작년 1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인구는 25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했는데, 특히 11월 인구는 8천명 넘게 줄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1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9천800명으로 1년 전보다 254명(-1.3%)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7

명)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반면 11월 사망자 수는 2만8천426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천823명(1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8천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5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기록했으며, 감소 폭은 자연감소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자연감소는 -4만1천876명으로 이미 2020년 연간 자연감소분(-3만2천611명)을 넘어섰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7천88건으로 1년 전보다 1천 89건(-6.0%) 감소하며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1~11월 누적 혼인 건수도 17만2천748건에 그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한국, 아세안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 아세안 10개국 국기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기(가운데). 사진=shutterstock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국가로 '한국'을 뽑았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아세안센터는 이날 '2021 한-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9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현지 청년 1천800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청년 500명, 한국 청년 1천 명 등 3천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 아세안 청년의 93.6%, 한국 거주 아세안 청년의 96.7%가 가장 신뢰하는 국가(중복응답 가능)로 '한국'을 뽑았다. 일본(92%)과 호주(87.6%)가 한국 뒤를 이었다.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현지 아세안 청년(57.9%)과 주한 아세안 청년(38.9%)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말에 현지 아세안 청년 90.4%, 주한 아세안 청년 97.7%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이 같은 높은 관심이 한국 유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세안 청년들은 소셜미디어(SNS),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한국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접하는 콘텐츠로는 한국의 음식(59.5%), 여행(49.7%), 문화예술(43.3%) 등을 꼽았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을 말한다. 인구 6억6천만여 명이 거주하며,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3조1천62억 달러(약 3천527조원)에 달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